

# 水産資源 保護 위한 「부루벨트」設定 돼야

〈上〉

鄭 文 基 博 士 篇

## 學歷 및 經歷

- 1908년 9월 19일 全南 順天 出生
- 1919년 京城中學校 졸업
- 1926년 日本 松山高等學校 졸업
- 1929년 東京帝國大學 農學部 水産科 졸업
- 1930~39년 朝鮮總督部 水産技手(養食係長)
- 1939~43년 平安北道 水産試驗場長겸 道水産課長
- 1943년 京畿道 水産試驗場長
- 1944년 木浦水産試驗場長
- 1944년 釜山水産試驗場長
- 1947~48년 釜山水産大學 學長겸 農林部 水産局長
- 1949~50년 第1回·第2回 UN印度太平洋水産會議 韓國代表
- 1951년 濟州道開發團長겸 開發委員會委員長
- 1952~61년 中央水産檢査所長
- 1952~79년 서울大·成大·東國大·慶熙大 魚類學 講師
- 1954년 學術院 任命會員(終身會員·現元老會員)
- 1965년 韓國水産學會·韓國水準技術協會·韓國陸水學會 創設 初代會長
- 1962~67년 韓國銀行 金融通貨運營委員(1,2代)



## ◇ 中學時節까지

順天은 원래 山水가 수려하여 山 좋고 물 좋은 고장이다. 나는 어려서 이 좋은 자연환경에 흠뻑 젖어 山따라 江따라 풀내음을 맡으며 물고기 잡는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놀았다.

이러다가 7세되던 해 서당에를 다니게 되었다. 서당의 엄한 규율과 이론교육만으로 일관하는 교육방법이 못마땅하였다. 이러한 불만은 서당에를 오고 가는 길에 동료들과 싸우는 것으로 폭발되었다. 껍이나 많이 싸웠던 것이다. 이것이 스포츠적 발로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렇게 스포츠는 어린이들 뿐 아니라 모든 교육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8 살때 순천에 개화가 시작되어 신식교육을 하는 강습소가 신설되었다. 여기에 들어가니 운동시간이 교육과정으로 짜여 있었다. 나는 이 운동시간만 되면 즐거운 시간이었다.

1년을 다니고 나니 순천보통학교가 생겨 그곳에 입학하였다. 졸업을 하자 미국선교사들이 은성학교(현매산고등학교)라는 2년제 고등소학교를 만들었는데 나는 이 학교를 1회로 졸업했다.

그런데 우리가 졸업반이 되었을 때 총독부에서 세끼야(關屋)란 학무국장이 시찰을 왔는데, 그때 내 옆에 있던 아주 귀엽게 생긴 내 친구 김현석이란 학생에게 발을 멈추고 손을 꼭잡고 하는 말이 “사람이 훌륭히 될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한다. 공부는 할려는 마음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평생을 두고 잊혀지지 않는다.

민족은 다르지만 그때 그 말은 젊은 나에겐 나의 진리로 감명깊게 받아들여졌고, 나는 공부를 계속해야겠다는 결심이 굳혀졌다.

은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유학을 위해 상경했는데 중학교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을 주었다. 나는 경신학교에 3학년에 편입했다.

학교에 다니는데, 나의 스포츠적 기질을 보았는지 야구부에 들어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쾌히 응하여 1년간 썩스탸를 맡았다.

그런데 4학년때 미국선교사인 군스교장이 학생들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야만! 야만! 야만!”이라는 말을 노래부르듯이 하고 지나갔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2~4학년 전부가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는데, 이 학생들 전부가 중앙학교로 전학을 가버렸다.

사태가 이처럼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경신교장이 중앙학교 金性洙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말하기를 「이 학교에서 스트라이크를 하고 간 나쁜 학생들을 교장인 나에게 아무말도 없이 그대로 받아 주면 이 학교는 어떻게 되겠으며, 그 학생들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학생들을 다시 돌려 보내주시요」라고 했다.

여기에 대한 金性洙선생의 답변이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그 학교로는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서 우리학교에서도 받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가민족의 발전에 이바지 할 인적자원을 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미안하지만 우리학교에서 그 학교와는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볼테니 내가 맡은 것을 이해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4학년만 중앙학교에 남기고 이하는 경신으로 돌려 보냈다.

그런데 또 보성중학교 4학년이 스트라이크를 해서 중앙학교로 왔고, 청년학교 중학부가 없어지게 되자 이들도 중앙학교로 편입왔다. 이리하여 중앙학교 4학년은 서울장안의 4학년이 대부분 모두 모였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학생들은 본분을 지켰다.

이러한 결과는 金性洙선생을 위시하여 모든 선생님들이 진실한 애국자들이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우리민족이 타민족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신학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민족의 자주독립을 쟁취하려면 신학문을 해야한다. 또한 공부만 해서도 안된다. 반드시 운동을 병행하여 실력과 건강을 동시에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인촌선생은 학생들의 안목을 길러주는 데 “학생들은 지금 유행되는 학문만을 해서는 안된다. 5~10년이 지나면 새로운 학문이 유행되게 된다. 또한 공부를 해서 두각을 나타내야 하는데, 이미 유행된 학문을 하면 두각을 내기 힘들다. 따라서 새로운 학문으로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르침은 모든 학생들의 안목을 트어 주었다.

이외에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박해돈선생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본 동경대학물리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었는데, 수학생으로 機荷를 가르쳤다.

1학기 시험을 보고나니 기하과목이 0점이 대부분이었고 3~4명정도가 60점 이상이였다. 그래서 학생대표 5~6명이 모아 박해돈선생을 찾아가 항의를 했다. “박해돈선생님 기하점

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라고 항의를 하니 박선생이 말하기를 “사실은 나도 몇점을 주어야 할지 모르고 0점을 주었는데, 학생은 몇점이나 맞을 것이라고 생각 했는가?” 라고 반문을 하니, 학생이 대답하기를 “적어도 70점은 맞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다시 박선생님이 “이제야 학생의 점수를 알았다. 우리학교에는 0점부터 100점까지 밖에는 점수를 줄 수가 없다. 0점이하를 줄려해도 0점밖에 없어 0점을 주었는데, 학생의 점수는 -70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잘못 주었구먼”이라고 했다. 그리고 “제군들은 모두 훌륭한 학생들이고 소질도 좋은데, 내가 가르치기를 잘못했으니 2학기부터는 내가 책임을 지고 그만들테니 좋은 선생 만나 좋은 성적을 내어달라”고 했다.

이런일이 있고나서 박선생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뜻밖의 사표에 인촌선생이 연유를 알아보니 학생들의 불미스런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학생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했다. 그후 학생들이 잘못을 깨닫고 다시 박선생을 찾아가 심심한 사과를 하고 다시 수업을 받았다.

그 당시는 학생전체가 공부하는 목적이 민주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함인데 있었는데, 현실에서 보면 공부하는 목적이 개인의 역할을 위한데 있는 인상이 짙은 것은 너무나 대조적인것 같다. 이는 제삼 심사숙고할 문제인것 같다.

#### ◇ 日本留學時節

중앙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日本 유학을 결심하게 된것은 박석일이라는 선배가 일본 제 3 고등학교에 야구선수로 재학하면서 중앙학교 야구코치로 와 있었는데, 이 분의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았던것 같다.

일본에 가서 고등학교에 입학자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명치학원 중학부 4학년에 편입했다. 수업에 들어가니 일본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야구부에 들어갔다. 1 학기를 보내고 나니 일본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2 학기부터는 수업을 제대로 받았으나 운동을 하다보니 목표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실력이 못

되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조도전대학 부설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재수를 해서 이듬해 松山高等學校에 들어갔다. 이 학교에서도 여름이면 야구선수, 겨울이면 축구선수를 했다. 이러다 보니 동경제대를 잘 실력이 떨어져 구주대학교 공과대학 응용학과에 입학했다. 1년동안 야구선수로 활약하면서 축구부와 럭비부를 창설하는 등 운동을 했고, 東京帝國大學의 꿈을 버릴 수 없어 再受공부를 했다.

이듬해 東京帝大 水産學科에 입학했다. 첫강의에 들어가니 兩宮이라는 선생의 “여러분들은 동경제국대학에 들어 왔으니 우쭐 해질 것이다. 그러나 學問의 성과를 거둘려면 才能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한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일생 동안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감명을 크게 받아 각고의 노력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기도 했다.

2학년에 올라가니 고등학교 선배가 찾아와 대의원에 입후보하라는 것이었다. 내가 어떻게 대의원에 선출될 수 있느냐고 회의를 보이니, 선배가 하는 말이 “첫째로 송산고등학교 출신중에 아직 대의원이 선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송산고 출신이 지지해 줄 것이며, 둘째로 외국인이 지지해 줄 것이고, 셋째로 운동선수들이 지지해 줄 것이니 틀림없이 당선될것”이라고 권유하기에 그럴듯 하여 입후보를 했는데 결과는 유사이래 최고득점으로 당선되었다. 그래서 2년동안 학생회원과 럭비선수로 바쁜생활과 보람된 생활을 했다.

럭비주장으로 활약해야 하고 수산실습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시간과 운동시간이 중복되어 난처한 때가 많았다. 더욱 山川주임교수의 스포츠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해 난처했다. 그래서 부원들과 상의한 결과 주임선생을 럭비부장으로 모시면 편리할 것 같았는데 의견이 모아져 부원들과 함께 찾아가 럭비부장을 맡아 달라고 하니 자기의 아버지(동대총장을 지낸 山川健太郎)과 상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주임선생과 같이 찾아가서 사유를 말하니 山川健太郎선생이 “학생은 왜 그렇게 운동을 좋아 하

느냐”고 묻기에 “나도 모르겠으나 타고 날때부터 생리적으로 좋아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라”고 하면서 “주임교수에게 럭비부장을 맡으라”고 해서 문제가 무난히 풀렸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학생들에게 만연했는데, 일본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니 운동선수들은 사회주의에 물든 학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당국에서는 국가시책으로 대학생에게 스포츠를 적극장려시키라는 방침이 세워졌다는 것이었다.

#### ◇ 水産分野에 従事

졸업후에 山川健太郎의 주선으로 총독부 수산과 양식계장자리를 배정받았다. 認許可證 利權關係업무는 일본사람이 맡았고, 나는 물고기 생태연구 및 번식보호에 대한 법률제정업무를 맡았다.

2년뒤 총독부에서 군수로 추천해 권문이 왔으나 나는 거절했다. 이런것이 매년 되풀이 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매년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그 분야의 전공이 아닐뿐 아니라 나는 기술방면으로 출발했으니 끝까지 이 분야에 시종일관 종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루는 국장이 불러 하는 말이 “총독부정책이 조선사람에게는 기사자리는 못주게 되어 있고, 기수자리만 주도록 되어 있으니 늘어 죽도록 기수로 있어도 좋으냐”고 해서 그래도 좋다고 했더니 “당신이 것처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음은 놀랄만 하다. 만약 조선인에게 기사자리가 배정되면 첫번째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2개월 후에 평안북도 수산과 책임자겸 평안북도 수산시험장장으로 발령이 났다. 이곳에 6년간 재임하면서 행정문제와 물고기 연구를 같이 할 수가 있었다. 그곳은 국경지대라 중국과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그중 한예를 들면, 중국배가 300여척씩 들어와 물고기를 싼값으로 사가지고도 갔는데 거기에는 금과 아편등도 거래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중국배를 드나들지 못하도록 전패시키고, 무역업자를 조정하

여 정식루트를 통해 거래를 하도록 했더니 당년에 무역업자들이 부자가 됐다.

한편 압록강유역인 후창·자성등에 까지 가서 어족의 생태 및 산란연구를 했다.

그 당시 만주사변이 발발할 기미가 보여 우려를 하던차 인천으로 발령이 났고 인천에서 1년 근무하다 목포수산시험장으로 전근되어 1년만에 해방을 만났다.

#### ◇ 美軍政 水産顧問

목포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정세를 전망하고 있는데 하루는 군정청에 고문으로 들어간 金俊淵씨가 곧 상경하라는 전문을 보냈다. 그러나 해방직후라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튿날 또 전보가 왔다. 그래서 상경하여 중앙청에 들어가니 군정청장관을 만나러 갔다. 미군정장관이 하는 말이 “이 시간부터 군정청 수산고문으로 임명한다.”고 했다.

이튿날 군정 문교부 고문이었던 金性洙선생이 만나자고 해서 가니 부산수산대학을 접수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어제 군정청 수산고문으로 임명을 받았으니 군정장관에게 상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김성수선생이 군정장관하고 상의를 한 결과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뒤 인촌선생이 나에게 한사람 추천해 달라고 해서 김양하씨를 추천했더니, 김양하씨가 수산대학갈 자격이 있으면 서울대 공대학장으로 보내지 무엇 때문에 수산대학으로 보낼 것이냐고 하면서 만약 이 사람이 실수를 하면 책임을 지겠느냐고 했다. 내가 추천했으니 책임진다고 해서 김양하씨를 임시부산수산대학 학장서리로 발령을 냈다. 약 5개월정도 되니까 인촌선생이 만나자고 해서 가보니 “부산대학에 좌익사건이 생겨 학생들과 김양하씨가 부산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으니 어떨것이나”고 하면서 “이제 약속대로 책임지겠느냐”고 해서 약속대로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하고 나서 조건을 내세웠다.

- ① 우선 현교수진을 전부 백지로 돌려줄 것.
- ② 김양하씨를 석방해 줄것,
- ③ 좌익학생들을 석방해서 학교로 돌려줄것등을 조건으로 제시 동의를 얻고 부산대학장을 맡기로 했다. (계속)